

II. 바울의 사도직

오늘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초대 교회때에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밥먹고 살기 위해 신학을
하는 사람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I. 바울의 사도직

1. 사도의 조건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일반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 : 14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 : 15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가 될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내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사도 행전 1 장에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사도들이 선거를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 : 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사도행전 1 :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으로 부터 배워야 할 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의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 바울의 사도직

바울 사도는 12 사도 중에 들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롯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는 그 자리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점을 들고 나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사도가 아닙니까? 그정당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있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 부터 배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제 1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2.1 먼저 예수님으로 부터 배운 것은,

갈라디아서 1 :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 배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100% 일치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신학자들은 예수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일 뿐이다. 기독교는바울의 종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사도의 제 2 조건은 예수님으로 부터 직접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2.2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 :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 :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납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 : 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 :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 : 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 : 6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9 :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9 : 9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행전 9 :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도행전 9 : 11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행전 9 : 12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 :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도행전 9 :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도행전 9 : 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 :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직접 보내셨습니다.

2.3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4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 : 5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고린도전서 15 :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 :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 :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음에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지 못했느냐? (고전 15)

고린도전서 9 : 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¹ Am I not an apostle? am I not free? have I not seen Jesus Christ our Lord? are not ye my work in the Lord?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계시로 그에게 배워,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당한 사도입니다.

II. 다음에 헌신과 희생으로 가꾼 교회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가꾼 교회에서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천거서를 교회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 선택을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과 일치하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의종을 헤아려 그 분의 뜻에 맞게 처신하는 것, 그것 외엔 할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예수님 안에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를 공부해 보십시오.

1. 고난으로 영광받으신 초대 사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는 보냄을 받은 초대 사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히브리서 3:1 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 :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 : 2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히브리서 3 : 3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 사도(히, saluah 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분으로서 예수님을 사도(saluah)로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하신 일에서 모세와 비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 부릅니다. 이것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누누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 :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보냈다 하는 것이 *apostello*(ἀποστέλλω) 입니다.

요한복음 17 :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ἀποστέλλω)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로 이 땅위에 보내졌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기초를 놓은 모세와는 비길데 없이 높은신 분입니다.

그 초대 사도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직접 임명하시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엔

“나는 그 예수님의 사도이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 :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 :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 :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 :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나를 사도로 임명하여 보내신 그 분도 이 땅위에 계실 때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 내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극복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예수님과 하나됨’ 여기에 사도 바울의 세상만사에 대한 자기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영적 자원입니다.

그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교회의 주권자로, 교인들을 피지배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흥회 때가 되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제직회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이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눈에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3 :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가까이 보입니다. 이것이 그를 열광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 : 24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의 일치로 인해 영광이 눈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 :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 :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다른 아무 것으로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과의 일치로서 교회를 다스려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으로서 주님과 일치로 보여 준 사람입니다.

2.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의 위치

사도는 아람어로 saluah 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세계에서는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를 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saluah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saluah 는, 산헤드린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아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성전세를 받기 위해 파견되는 사람 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부르는 칭호를, 산헤드린의 의장이 갖는 칭호를, 당신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고귀한 직분을 나타내는 명칭을,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주셨겠느냐, 그것은 후대의 교회적 산물이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 보다 크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사도를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보다 크게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직은 구약의 모세보다 더큰 위대한 직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 이 가장 큰자라는 것을 찾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 : 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1 :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한 세례요한이 구약에서 가장 큰 자인데 그 세례요한 보다 천국의 가장 작은 자가 더크다 그러니 사도들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라는 직분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